뉴시티교회 초등부

리딩지저스

2026. 9. 14. (월) — 9. 19. (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37~48장 · 요엘서 · 다니엘 1~2장

이름 _____

나의 이번 주 마니또를 잊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챙겨줍시다!ㅎㅎ

여는 글

이번 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다 읽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지나, 새 도시의 이름으로 끝나요. 그 이름은 "여호와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8장에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금요일에는 요엘서를 읽고 그날 밤 금요기도회에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요. 토요일에는 바벨론 왕궁의 다니엘을 만나요. 마른 뼈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이번 주 한눈에

6일간의 여정

01
9월 14일 (월)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02
9월 15일 (화)
보고 듣고 마음에 담아요

03
9월 16일 (수)
영광이 돌아오셨어요

04
9월 17일 (목)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05
9월 18일 (금)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요

06
9월 19일 (토)
손대지 않은 돌

에스겔 37장

9월 14일 (월)

오늘의 말씀

37장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9월 14일 (월)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죽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에스겔의 몫이었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생각 & 적용 질문

너무 늦었다고, 안 될 거라고 포기한 일이나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죽은 뼈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한 가지 적고,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40장

9월 15일 (화)

오늘의 말씀

40장

1 우리가 사로잡힌지 이십 오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십 사년 정월 십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척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 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5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척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 담을 척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9월 15일 (화)

보고 듣고 마음에 담아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 오늘의 묵상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새 성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빛나는 사람이 긴 장대를 들고 문과 뜰과 방들을 하나하나 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라" 하셨습니다. 높이 치수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는 약속의 그림이었습니다. 14년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 생각 & 적용 질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았던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을 것을 상상해서 한 줄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43장

9월 16일 (수)

오늘의 말씀

43장

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3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5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6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7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9월 16일 (수)

영광이 돌아오셨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에스겔이 동쪽 문에 서 있는데,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왔습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온 땅이 그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8장에서 성전을 떠나셨던 바로 그 영광이었습니다. 떠나실 때는 천천히, 머뭇거리듯 나가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곧바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싶어서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내 보좌가 있을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돌아온 영광 한가운데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사시려면 그 사이에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단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번 주일에 바로 이 말씀으로 예배드려요.

생각 & 적용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주일예배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한 줄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47장

9월 17일 (목)

오늘의 말씀

47장

1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척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 다시 일천척을 척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척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 다시 일천척을 척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더라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9월 17일 (목)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조금 더 가니 무릎까지, 다시 허리까지, 마지막에는 헤엄쳐야 하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은 사해로 흘러갔습니다. 사해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닿자 그 죽은 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 죽어서 살릴 수 없는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강이 성령님이고, 강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생각 & 적용 질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서 강물이 흘러나간다면, 그 물이 제일 먼저 닿았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48장, 요엘 2장

9월 18일 (금)

오늘의 말씀

에스겔 48장

35 그 사면의 도합이 일만 팔천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요엘 2장

12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28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9월 18일 (금)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에스겔서는 새 도시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여호와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새로 읽는 요엘서는 메뚜기 떼가 온 땅의 곡식을 다 먹어 치운 재앙에서 시작합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옛날 사람들은 슬프거나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 주는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께만 보이는 진짜 회개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오순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밤 금요기도회에서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요.

생각 & 적용 질문

잘못했을 때 미안한 척만 하고 마음은 그대로였던 적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적고, 금요기도회 때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다니엘 1장, 2장

9월 19일 (토)

오늘의 말씀

1장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2장

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9월 19일 (토)

손대지 않은 돌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꿈 내용을 말해 주지도 않으면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밤에 그 꿈을 보여 주셨습니다. 꿈은 금 머리, 은 가슴, 놋 배, 철 다리를 가진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 신상을 산산조각 냈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커도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 손 없이 시작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이 자랍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일 주일, 다시 돌아오시는 영광 앞에 서요.

생각 & 적용 질문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 하고 싶은 것 중에, 다니엘처럼 "안 하겠다"고 정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한 가지 적어 보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할 일을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주 일 예 배

설교 노트

설교 아웃라인 〈다시 돌아오는 영광〉

시리즈 《바벨론에서 만난 그리스도》 · 에스겔 43:1–7

말씀을 들으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

한 문장 메시지: 그발 강가에서 떠났던 영광이 (①_____)으로 돌아온다.

1. 어디에서 떠났나요? (에스겔 8~10장)

성전 안 골방에서 사람들이 (②_____)에게 절할 때, 영광이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떠나실 때는 (③_____)거리며 천천히 나가셨습니다.

2. 어떻게 돌아오나요? (1–5절)

영광이 (④_____)쪽에서 왔고, 그 소리는 많은 (⑤_____) 소리 같았습니다.

에스겔은 그 앞에 (⑥_____)렸습니다.

영광이 (⑦_____)문으로 들어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3.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6–7절)

여기는 내 (⑧_____)의 처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⑨_____)히 있을 곳이다.

돌아온 영광 한가운데에는 (⑩_____)이 있습니다. 죄인과 함께 사시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단이 (⑪_____)이고, 그 영광이 예수님입니다.

한 줄로 새기기

하나님은 떠나고 싶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골방을 비우면, 영광이 (⑫_____)오십니다.

● 자유 필기 노트